

오늘 순천시 전국생활문화축제 개막

순천만국가정원서 사흘간 온택트로 밴드경연대회·랜선포럼도 개최 개·폐막식 페이스북·유튜브 생중계

전국의 생활문화 동호인들의 잔치인 '2020 전국 생활문화축제'가 16~18일 순천시 순천만국가정원에서 열린다. 15일 순천문화재단에 따르면 재단과 지역문화진흥원이 공동 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는 이번 축제는 '지역이 만들고, 모여서 나누고, 모두가 누리고'를 주제로 펼쳐진다.

올해는 코로나19의 확산을 우려해 온택트(온라인+언택트) 축제로 치러진다. 전국의 생활 문화인들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페이스북과 유튜브 등으로 생중계할 계획이다. 축제 기간 경기 군포시와 인천 부평구, 울산시에서도 생활문화축제가 열린다. 축제의 주 무대인 순천과 지역 축제 현장을 온라인으로 연결해 소통하게 된다. 순천만국가정원에서는 화상회의 시스템을 활용한 300개의 멀티화면을 설치해 개·폐막식과 공연 프로그램이 중계된다. 8일부터 순천만국가정원에서는 전시 프로그램이 진행 중이다. 순천만 인근 주민들이 갯일을 할 때 사용하는 벨

배를 활용한 '순천만 생태·공감'과 장성군 초등학교 1천여명이 참여해 황룡강의 아름다움을 담은 '황룡강 르네상스-천개의 꿈'이 선보이고 있다. 올해 처음 열리는 전국생활문화밴드 경연대회와 '포스트 코로나, 생활문화의 혁신'을 주제로 열리는 생활문화 랜선포럼도 눈길을 끈다. 순천문화재단 관계자는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이지만 이런 때일수록 문화가 있는 삶과 일상은 위로와 용기를 심어준다"며 "온택트로 처음 시도하는 이번 생활문화축제에서 생활문화의 가치인 공동체를 회복하고 일상 속 생활문화를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고창군의 대표축제 모양성제 답성놀이. <광주일보 자료사진>

고창모양성제, 주민안전기원 성황제로 연다

고창군은 17일부터 나흘간 개최예정인 '제47회 고창모양성제'를 축소, 주민안전을 기원하는 성황제로 대체한다고 15일 밝혔다. 고창군과 (사)고창모양성보존회는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독감 인플루엔자와 동시에 유행하는 '트윈데믹'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해 축소했다. 올해 고창모양성제는 47회의 명맥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코로나19와 자연재해 등으로부터 고을의 무사 안녕을 기원하는 기원제로 열린다. 또 '비대면 버스킹 공연'과 '답성놀이체험' 등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발맞춰 맞춤형 홍보영상으로 제작한다. 영상은 고창의 아름다운 주요 관광지를 알리고, 내년 고창모양성제 사전홍보를 위해 온라인 전국 방송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고창=김형주 기자 khj@kwangju.co.kr

국토부 도시재생 발표대회 군산 우체통거리 '최우수'

군산시는 국토교통부가 주최한 '2020 도시재생 산업박람회' 도시재생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15일 밝혔다. 군산시는 우체통거리의 주민 주도 도시재생사업을 주제로 발표했으며, 상권회복과 경관활성화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우체통거리는 지난 2016년 버려진 폐우체통을 활용해보자는 주민의 작은 아이디어와 함께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원도심인 중앙로 상가와 월명동 일원을 중심으로 조성했다. 주민들은 110여년의 역사를 가진 군산우체국 본점이 위치한 이곳 거리에 직접 폐우체통을 손질하고 만화 캐릭터를 그려 넣는 등 아기자기하게 꾸며 거리 양쪽 곳곳에 설치했으며, 특색 있는 경관조명과 아트월 등 조형물을 설치했다. 아울러 손편지 쓰기와 우체부 체험, 공예 체험 등 다양한 체험 행사 등 거리를 찾는 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즐거운 볼거리를 제공하는 등 주민 주도의 성공적인 도시재생으로 손꼽히고 있다. 군산시도 지난해 선정된 소규모 재생사업 일환으로 월명동 우체통거리 홍보관을 조성해 관광객이 근대역사거리에서 대학로를 건너 우체통거리까지 다양하게 즐길 수 있도록 했다.



'군산 우체통거리'가 국토부 도시재생사업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 때문에 우체통거리는 입소문과 SNS를 타고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군산에 오면 꼭 들러야 하는 새로운 명소가 자리잡았다. 이기만 도시재생과장은 "주민과 행정의 협력을

통해 좋은 결과를 얻어 매우 뜻 깊다"며 "우체통거리 뿐만 아니라 우리시 도시재생 주민공동체의 도약과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군산=박규식 기자 nogusu@kwangju.co.kr

전북, 초미세먼지 발령일 작년 65일... 전국 최고

전남·울산 11일로 최저

지난해 초미세먼지 주의보 발령일수가 전북지역이 17개 시도 중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은 전북지방환경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초미세먼지 주의보 발령일이 총 87일이었는데 전북은 65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며 "지난해에 비해 55%가 감소한 올 상반기에도 전국적으로 31일간 주의보가 발령되었는데 전북은

27일로 가장 높았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전북지역이 시·군단위로 발령기준을 운용해 발령일수가 상대적으로 많다고 하지만, 같은 시·군 단위 발령조건을 사용하고 있는 경남(18개 시·군)은 발령일수가 7일로 전북(14개 시·군)에 비해 1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환경부가 제출한 2019년 기준 초미세먼지(PM 2.5) 주의보(경보 포함) 발령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북이 65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충북과 충남 44일, 경기 38일, 세종 32일, 서울 29일로 나타났다. 전남과 울산은 11일로 가장 적었다. 윤 의원은 "전북지역이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되는 이유에 대해 정확히 진단해야 올바른 처방이 나온다"면서 "지난해에 비해 올 상반기 미세먼지가 급감한 원인과 전북지역이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이유를 정확히 분석해 절감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국제와이즈멘 전북지구, 남원시 수해 주민 위해 100만원

국제와이즈멘 한국전북지구(총재 하승빈)는 최근 코로나19 극복과 지난 8월 심각한 수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한 성금 100만원을 남원시에 전달했다고 15일 밝혔다. 국제와이즈멘 전북지구는 5개지방 40개클럽에서 1500여명의 회원이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다채로운 봉사활동을 실천하고 있는 사회단체다.

하승빈 총재는 "늦게나마 수해를 입은 남원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다"며 "수해로 힘들어하는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하길 응원한다"고 말했다. 한국자유총연맹 남원시지회는 200만원을, 동북교회 학성회는 36만9210원을 기탁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익산시, 인구 10명 전입시키는 시민에 장려금 최대 100만원

익산시는 다른지역 인구를 전입시키는 시민에게 최대 10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올 연말에 다가올 것으로 우려되는 인구 28만명 선 봉고를 막기 위한 종합대책의 하나다. 장려금은 5명 이상을 전입시키면 50만원, 10명 이상이면 100만원을 지급한다. 대신 전입자가 6개월 이상 익산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살아야 한다.

공무원은 장려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익산시는 관련 조례를 올해 안에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인구 늘리기를 위해 청년 수당과 다자녀 가정 수당도 신설하기로 했다. 청년 수당은 지역 중소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한 만 18~39세 청년에게 3년간 월 30만원씩 총 1080만원을 지급한다. /익산=유정영 기자 yjy@

도서출판 상상인

NEXT

상상인을 찾습니다.

도서출판 상상인에서는 우수한 시집원고를 모집합니다.

도서출판 '상상인'은 재능있는 시인들의 작품집 발간을 위해 우수한 시집원고를 수시 공모합니다. 접수받은 원고는 매분기 엄정한 심의를 거쳐 작품집으로 출간됩니다.

107인의 신춘문에 출신들의 상상(앤솔로지)을 시작으로 2020년 1월부터 지금까지 총 9권을 발간하였으며 발간 예정인 시집들도 다수 있습니다. 앞으로 시집뿐만 아니라 평론집, 시조집, 동시집 등 다양한 작품집을 발간해 나갈 예정입니다.

더불어 도서출판 상상인은 문학사업의 일환으로 상상인 창작지원금 제도를 마련해 우수한 시집을 발굴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 원고 보내실 곳 E-mail : ssaangin@hanmail.net
- 모집원고 : 시집 한 권 분량(시 50편 이상)
- 출간혜택 : 선인세 일백만원, 해설비 지급 등을 통하여 시집 제작. (필요시 저자는 정가의 70%에 구입)
- 문의 : 010-7371-1871

지금까지 출간된 상상인 시선

- 상상 (앤솔로지)
- 봄음이 제 몸을 뒀다 김유석
- 오랜지 나무를 해단으로 칠게요 최지하
- 새, 블랙박스 양수덕
- 방울을 울리며 낙타가 온다 이선애
- 그녀의 외로움은 B형 - 신규리본 중독자 마경덕
- 사과상자의 이설 전다형
- 당신에게는 이르지 못했다 권혁재
- 메타본세라이어 시선 강대선

- * 7월 발간 예정 김남수 시집 - 동근 것을 보면 아프다
- * 8월 발간 예정 장영주 시집